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IFJ

Mr. Philippe Leruth

친애하는 기자 여러분

먼저 본 대회에 초청해주신 한국기자협회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참석하지 못합니다만 국제기자연맹을 대표하여 인도의 Sabina Inderjit 부회장이 참석할 것입니다.

본 대회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은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매우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남북한 대화가 재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 남북한 대화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동안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기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제기자연맹은 우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자의 윤리적 의무를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기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기자는 우선 진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표현, 논평, 비판의 자유를 지지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낸다는 것은 단지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대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자는 정치적 선전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선전은 혐오발언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오랫동안 혐오발언을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본 대회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국제기자연맹은 본 대회의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동료 분들께 대회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제기자연맹이 혐오발언에 맞서고 정치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대회에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